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한국교회 제목 : 한국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성경: 로마서 9장 1-3절 (한국교회,한국의소망,북한,신약성경,로마서)

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9:1-3)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한국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묘하게 마블링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 아닌가? 한국의 역사 또한 그렇다. 놀랍게도 수많은 민족들이 도전 속에 그 정체성을 상실하였지만, 한국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정체성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몇 안되는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다.

바로 이점이 한국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대륙의 꼬트머리, 그러나 교묘하게도 지정학적 중심지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꼭꼭 숨겨 놓으신 이유가 있을 법하다.

이런 한국교회의 최대 도전은 북한과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기형적으로 변질된 공산주의 세력이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말렉 족속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 오늘날 이슬람국가가 그렇듯이.) 공산주의의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치이론일 뿐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허점이 많은 사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에 대한 확신이 큰 나머지 과감하고 무력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내에 세계를 적화시키려는 야욕을 펼쳤다. 그 행동규범이 곧 프로레타리아 혁명론인데, 그 정신이 아말렉족속들의 파렴치함, 무자비함, 기만과 독설, 야비함 등 온갖 악랄하고 마귀적인 요소들로 가득하다.

김일성도 온갖 숙청과 만행을 저지르다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기독교의 요람이었는데, 그 뜨거운 신앙을 처참하게 짓밟았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다.

우상화는 가장 파렴치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하나로 묶어내는 도구로서는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김일성우상화에 찬성한다. 김일성을 신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신앙심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일 뿐이다. 특히 남파된 간첩들, 중북주의자들, 통진당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문명사회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미련하게 김일성을 신으로 믿고 있겠는가? 자신들의 정권 야욕을 위해서 그러는 척 하고 있을 뿐이며, 일부 TV에 나와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들은 정권 야욕에 눈이 먼 사람들의 눈에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신격화야말로 정치집단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아군과 적군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으며, 그 신의 무자비한 명령에 자신들의 사악한 정치야욕으로 인한 도발들을 드러내면서도 그 명령 뒤에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을 숨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어디있겠는가?

북한의 정치세력은 독특한 사악성을 띄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사명을 가지고 막아내야 한다.

가천대학교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북한24시 기도의집 대표, 이용희교수는 한국교회와 북한 가정교회, 북한정권의 관계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설명하였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의 이웃이다. 물론 세계교회가 북한 기독교인들의 이웃이지만, 일차적인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북한정권은 아말렉과 같은 자들로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강도와 같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선행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처럼 북한정권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하는걸까? 영적으로 그들은 아

말렉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원수들이다.

물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원수들에게 순순히 노략당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순순히 목숨을 내어 주라고 하시진 않으셨다. 노략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겠지만, 결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선은 아니며 기독교의 목적도 아니다.

다만 악은 방치할 때 창궐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원수가 마귀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이겨야 한다.

악은 무성하나 강하지 않으며, 선은 약해 보이나 건강하다. 악한 자가 더 절망하고, 더 잘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다.

그러나 선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항상 밝은 소망으로 가득하다. 한국교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보다 더 강하며, 곤궁에 처한 자들을 돕는다.

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9:1-3)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불붙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동족,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대적한다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도 애초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으니 더욱 그렇다. 그는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많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실 리는 없지만, 정말로 동족들이 천국에 가는 조건으로 자신이 지옥에 가야만 한다면 그는 가고자 하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북한 정권이 한국교회의 적이라고 여겼다. 그들로부터 힘을 얻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는 남파된 간첩들이고(약5만명) 간접적으로는 북한에게 동조하며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들이다. 김일성은 똑똑한 놈들은 데모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정부 요직에 파고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사회는 일종의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서 사사건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한편은 아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교묘하게 진실을 말하는척 하면서도 한국사회를 이간질하는 소리를 내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더욱 기독교인들이 단결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공의 적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기 위함이다.

이용희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자.

북한의 대남전략 가운데 '한국 10대 대형 교회 죽이기' 라는 전략이 있다고 한다.

황장엽씨는 김일성이 죽고 난 뒤, 김정일에게 중국식 개혁 개방을 제안했지만 김정일은 이것을 거부하였다. 결국 황장엽 씨는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망명했다.

황장엽 씨는 남한에 북한 공무원이 5만 명쯤 있다고 증언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한이 적화되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북한과 베트남은 적화가 되는데, 왜 남한은 안 되는가? 남한은 교회 때문이다. 교세를 1/10으로 줄이면 통일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교회의 교세를 1/10로 줄이는 전략 중 대표적인 것이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리기'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할만한 자들을 지원하였다. 안티 크리스찬들, 이단들, 동성연애자들, 타종교

들, 전교조, 운동권 등 수없이 많은 적들이 덩달아 한국교회를 공격하였다.

여기에 가세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 그리고 언론, 문화, 출판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억압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사소한 일들에 휘말리게 하였고,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기독교인들은 과연 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우왕좌왕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기독교 자체의 문제도 가세하였다.

구원파가 초기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퍼뜨려놓은 건강하지 못한 교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기성교회의 윤리로 굳어지면서 믿는척하는 교인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자 교회들도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에 집중하기 보다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로, 교과의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교과가 분열되자 교단 총회의 헌법이 점점 그 통치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치루어야 할 것들을 각개로 치루면서 시간과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게 되었다. 그것이 곧 세계선교와 이단척결과 외교활동이다. 아무도 분열된 교회와 외교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이 한국교회를 공격할 때 마땅히 저항해 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에 싸서 보호하는 교회이다.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할만한 것은 아니다. 물론 문제가 대수롭지 않은 것은 아니니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한다. 오직 한국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저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이단척결 제목: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 말씀: 디도서 3장

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2 내가 아데미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13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4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15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딤후3:1-15)

<총회 자료실>

## II.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연구 보고

### 1. 역사적 기원과 현황

여호와의 증인은 찰스 테이즈 러셀(*Charles Taze Russell, 1852-1916*)에 의해 시작되었다. 지옥교리에 회의를 갖고 있었던 러셀은 1870년 18살의 어린 나이에 성경공부반을 조직하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성경공부반 회원들은 그를 목사로 추대하였다고 한다. 이후 독특한 성경해석방법을 실은 「시온의 파수대」 (*Zion's Watchtower*)라는 잡지와 여러 책들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의 세력을 키워나갔다고 한다. 그는 1914년 아마겟돈이 일어나 세상의 정치권력이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예언이 빗나가자 충격을 받았고, 1916년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게 된다. 그 후에도 많은 후대의 교주들이 여러 종말의 시간(1925년, 1975년 등)을 예언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세를 키우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지도자는 3대 교주였던 나단 노르(*Nathan Knorr, 1905-77*)였다. 그가 회장직으로 있는 동안 여호와의 증인의 수가 11만 5천명에서 2백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며, 1961년에는 여호와의 증인 독자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등 자신들만의 성경해석 체계와 교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은 전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현재 신도들의 수가 6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1912년 홀리스터 부부와 1915년 내한한 맥켄지 부부에 의하여 포교활동이 본격화 되었으며, “여호와의 증인 전세계 2009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는 97,385명이며, 전국에 분포된 왕국회관은 1,412개로 알려져 있다.

## 2. 여호와의 증인의 주요 잘못된 주장들과 비판

### 1) 삼위일체는 비성경적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서 성경을 제시한다. 그들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예수님 자신이나 혹은 초대교인들은 삼위일체교리를 믿지 않았다”(Let God Be True, 1952, p.52). 더 나아가 그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꾀계라고 주장한다.

만일 삼위일체의 교리가 부인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분명히 한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성령 역시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활동력에 불과하다.

이러한 그들의 해석은 성경이 자신들의 유일한 권위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취하신 하나님, 참신성과 참인성을 소유하신 분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지옥은 없다.

여호와의 증인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들은 그 근거로서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①비성경적이며, ②비이성적이며, ③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며, ④하나님의 공의와도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이자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한다면, 죄의 대가로서의 형벌을 받는 것이 참으로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 3) 행위로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증인은 세상 종말의 날엔 두 가지의 종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지상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극소수의 사람들(14만 4천명)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생의 삶이 그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나라를 다스린다고 주장한다. 그럼 어떤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분투하고 노력하며 행동으로 헌신하는 여호와의 증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여러 이단종파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여호와의 증인의 구원관과 천국관 역시 신비적, 상징적인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 4) 그 외 사회적 물의

여호와의 증인은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가제창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의무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친다. 병역의무는 물론이요, 선거와 같은 정치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이 모든 종류의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이유는 세상 정부를 사탄의 왕국으로 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성경의 “피를 멀리하라”와 “피를 먹지 말라”라는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수혈을 받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III. 연구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신비적, 상징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심각한 성경해석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삼위 일체의 교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지옥을 부인하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즉,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단이다.

### IV. 참고 자료 목록

- 1) 조쉬 맥도웰/돈 스투어트, 『이단종파』, 서울: 기독지혜사, 2000.
- 2) 로버트 M. 바우만, 『여호와의 증인』, 서울: 은성, 1997.
- 3) 현대종교 편집국, 『이단 바로알기』, 서울: 월간 현대종교, 2011.
- 4) 정행업, 『세계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논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5) 기타자료

## II. 몰몬교에 대한 연구 보고

### 1. 역사적 기원과 현황

‘몰몬교’ 또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은 조셉 스미스 2세(*Joseph Smith Jr., 1805-44*)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스미스는 1820년에 몰몬교 창립의 기초가 되는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15세의 어린 스미스는 분열된 여러 교파들 중 어느 교파가 옳은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던 중 천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천사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며 그 신자들은 부패한 자들이다”라는 계시를 그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환상은 그의 나이 18세 때인 1823년에 주어졌는데, 모로나이(*Moronai*)라는 천사로부터 온전한 복음이 적혀있는 금판의 존재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1827년 다시 나타난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우림(*Urim*)과 둠뮴(*Thummim*)과 함께 금판을 파내서 번역하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후 1829년에는 세레 요한으로부터 아론의 제사장 직을 수여받았으며,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벨기세텍의 제사장직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1830년 4월 6일 뉴욕주의 파예테(*Fayette*)에서 여섯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몰몬교가 시작되었고,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시켜갔다. 그러던 중 비몰몬 교도들과 다툼을 피할 수 없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를 계속하다가 1844년 6월 27일 일리노이주의 칼티지에 있는 감옥에서 자신의 형제인 하이럼(*Hyrum*)과 함께 감옥을 습격한 사람들에게 의해 살해당했다.

몰몬교의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지도자는 조셉 스미스의 계승자였던 브리검 영(*Brigham Young, 1801-77*)이었다. 그는 1844년 공식적으로 스미스의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었고,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계곡에 몰몬교의 본부를 세웠으며, 그가 사망할 때에는 몰몬교도의 수가

15만명에 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몰몬교는 전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현재 몰몬교도들의 수가 천만 명이 훌쩍 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6.25동란 즈음에 진출하였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수백 개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각 지역마다 선교부와 교육원을 가지고 있으며, 신도들의 수가 7만 5천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몰몬교의 주요 잘못된 주장들과 비판

### 1) 몰몬교만이 참된 교회이다.

몰몬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몰몬교를 만드셨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몰몬교는 개신교도 카톨릭도 아닌 유일한 참된 교회이다. 즉, 자신들의 종교를 제외한 모든 교파들은 타락한 교회이며, 몰몬교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타락한 자들이라는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 2) 성경은 무오하지 않다.

몰몬교도들은 경전으로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가 그것들이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전으로서 믿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신앙조항을 보면 "우리는 바르게 번역된 한도 내에서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Articles of Faith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8)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성경의 정경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경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그들은 성경은 이미 오염되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세권의 책을 더욱 신봉하고 있으며, 특별히 몰몬경을 최고의 영감된 책으로서 신령하게 여긴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의 영적

권위는 물론 계시의 궁극성을 부인한다.

### 3) 하나님은 존귀함(승귀함)을 입은 사람이다.

‘값진 진주’라는 책을 보면 몰몬교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라고 주장한다. 일견하기로는 성경의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이들의 진술은 전통적인 교리와는 완전히 낯선 것이다.

몰몬교의 교리는 유일신이 아닌 여러 신들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은 한 때 한 인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은 존귀(승귀)함을 입은 사람(*exalted man*)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몰몬교에 가입한 남성들은 하나님처럼 신격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과 루시퍼는 형제였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택할 때에 루시퍼가 반대하면서 대항하게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신비적인 교리까지 주장하고 있다.

즉, 몰몬교의 신론은 추상적이고 신비적일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신 사상은 물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성경과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 4) 헌신하는 몰몬교도들만이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몰몬교에 의하면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 의하면 구원이란 세 가지 단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천경왕국’(*celestial kingdom*), ‘지경왕국’(*terrestrial kingdom*), 그리고 ‘원경왕국’(*telestial kingdom*)이 그것들이다. 원경왕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이들이 가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간 이들은 높은 이들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에는 올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경왕국은 복음을 받아들였

으나 천상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한 곳이며, 천경왕국은 신들이 될 뉘기세택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장소이다. 몰몬교는 천경왕국은 오직 조셉 스미스의 허락(증명서)이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에 몰몬교와 의로운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몰몬교의 교리는 터무니없이 신비주의적 사고에 빠져있으며, 헌신된 몰몬교도들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참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를 신격화하는 이단종파로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부다처제에 관한 교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종차별적 교리 역시 가지고 있어 사회적인 물의 역시 피할 수 없다.

### III. 연구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몰몬교는 한 개인의 신비적 체험과 환상, 그리고 신비주의적 상상력에 기초한 교리에 의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영적교만과 편협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으며, 유일신 신앙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 신성을 부인하고, 조셉 스미스를 신격화하는 이단이다.

### IV. 참고 자료 목록

- 1) 조쉬 맥도웰/돈 스투어트, 『이단종파』, 서울: 기독지혜사, 2000.
- 2) 쿠르트 반 고든, 『몰몬교』, 서울: 은성, 1997.
- 3) 정행업, 『세계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논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4) James R. White, *Letters to a Mormon Elder*, Bethany House, 1993.
- 5) 기타 자료

